



[신년사]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에너지신문 | 승인 2025.01.01 00:00

‘원자력의 가치’ 다시 생각하며

[에너지신문]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산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원자력 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와 응원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2009년 UAE 원전 수출과 요르단 연구로 수출에 이어 K-원전이 체코 원전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고, 오는 3월 최종 계약도 차질 없이 성사될 것입니다.

세계는 안전하고 깨끗하고 저렴하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원자력의 가치를 인식하고 원자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도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무엇보다도 산업 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의 확대가 절실합니다.

원자력은 이념의 대상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도 아닙니다. 오직 국가 미래와 후손을 위한 합리적 선택입니다. 아직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와 고준위방폐물 처분이라는 숙제가 있지만, K-원자력은 세계에 자랑할 우리의 자산이며 미래이며 안보와 경제성장의 핵심입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먼 길 함께 갈 것을 약속하고 묵묵히 할 일을 하는 원자력 가족과 에너지 종사자분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며, 모든 분에게 새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